
무디스, 콜롬비아 신용등급 Baa2로 상향 조정

(2014. 7.)

콜롬비아 보고타 사무소

-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28일(현지시간) 콜롬비아에 대한 국가 신용등급을 종전 'Baa3'에서 'Baa2'로 상향 조정

- 콜롬비아의 신용등급 전망은 '안정적'으로 제시

- 신용등급 'Baa2'는 투자부적격(정크) 등급보다 두 단계 높은 것으로, 남미 최대 경제국인 브라질과 같은 신용등급
 - 페루, 멕시코 : BBB+(S&P, Fitch), A3(Moody's)
 - 칠레 : AA-(S&P), Fitch(A+), Aa3(Moody's)

- 무디스는 콜롬비아의 안정적인 경제 성장세를 상향 조정 배경으로 꼽았으며, 4G (Fourth-Generation Concession Plan)로 일컬어지는 PPP 인프라 건설 프로그램을 통해 역동적이고 견실한 경제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

- 콜롬비아가 올해 4.7%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향후 10년 뒤에도 5~5.5%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